

2018. 12. 10(월) 10:00

-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시 정 질 문



논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조배식

논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조배식입니다.

13만 논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논산시민 모두가 즐겁고 쾌적하며 전국에서
살기 좋은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힘써
주시는 황명선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국 최초 연무읍에 국가국방산업단지 유치
성공과 체험형 관광명소가 된 선사인랜드, 복지와
연대의 공동체 동고동락을 구축하고, 교육자치
공동체로 논산의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지방자치의 꽃인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통한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 주력하시는
황명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두 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논산시의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관계를 질문 드립니다.

우리시의 시외버스터미널은 1990년대 현 취암동에 설립되어 30여년간 많은 시민들의 수송을 담당해 왔으며, 주변 상권의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이 시내중심지에 위치하다 보니 그 주변의 교통 체증이 심각한 실정이고 터미널 시설이 오래되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논산시외버스터미널을 인근시인 공주시처럼 복합 터미널로 탈바꿈하여 이전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개설된 신설 도로망과 2002년 개통된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연계된 도시기본계획이 검토되고 이에 따른 도심 개편작업이 진행되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위치는 신설 도로망과의 연계성이 없고, 중심 시가지를 통과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불편한 조건으로 도심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터미널 이전의 당위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2017년 영주 고속 시외버스터미널을 42년만에 이전을 했습니다.

옛 터미널은 이용객대비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도시미관을 훼손 및 이용객들도 많은 불편을 끼쳐 왔습니다.

특히 시가지 중심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해

이를 해결하고자 2010년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문제로 시민들이 서민경제와 도시 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등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지역상인들은 기존 터미널을 리모델링하고 버스 진입로를 개선하면 충분하다며 터미널을 이전할 경우 시민들은 이중으로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한다 지적했고

상인연합회에서도 행정력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면서 상권이 분리되고 경제적 손실이 커 반대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영주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여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면서 상대적 소외지역으로 떠밀려 침체되어 가던 옛 터미널에 복합 영화관을 유치하고 개관하여 구도심공동화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은 논산시 도시 기본계획과 인접한 주변도시의 도시계획과, 이전할 시에는 구 터미널에 대한 활용방안까지 모두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결실을 위해 시민,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금 노성면 병사리에 기호유교의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2020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5,000m²의 규모로, 충청유교문화원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충청유교문화원이 건립되면 학술, 연구, 연수 등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방문객들이 논산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노성면 읍내리 소재 명재고택, 권리사, 노성향교, 병사리 소재 유봉영당, 장구리 소재 윤황선생 재실 등 지역의 역사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시설을 확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성산은 평일에는 200여명, 휴일에는 500여 명의 시민이 찾고 있는 산책 및 등산길의 명산입니다. 나무와 꽃 식재를 통해 노성산 탐방객 및 주민에게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노성산과 충청유교문화원이 건립되는 호암산을 잇는 8km 등산로 개설과 3km 선비로길을 조성하여 논산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논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선비의 삶의 지혜를 찾는 고즈넉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발 348m의 산정에 축조된 백제시대의 석축산성인 노성산성을 정비하고 서울에서 전남 순천을 연결하는 봉화대를 복원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노성면에 소재한 문화유적과 노성산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충청유교문화원 주변 관광개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